

## 볼리비아의 리튬 자원 산업화 정책과 선택의 정치경제\*

이상현\*\*

단독/전북대학교

**Yi, Sang-Hyun (2013) "The Industrialization Policy of Lithium in Bolivia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Choice"**

###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asons behind the industrialization policy of lithium in Bolivia. Bolivia has vast amount of lithium reserves. To industrialize its lithium resource, the Morales regime has to choose between two main policy options. One is the 'state-led industrialization' policy in which the Bolivian state owns resources and controls all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The other option is 'industrialization with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n which the foreign capital and technology become the main players to develop the Bolivian lithium resource. Each policy has strong and weak points. Faced with these options, the Morales regime chose 'state-led industrialization' to develop the lithium resource in spite of Bolivia's short capital and low technology. Bolivian president Evo Morales is a politician whose most important goal is to win the election, so he has opted 'political certainty' over 'economic uncertainty'. Based on the evidence presented in this study, the economic future for Bolivian lithium is doubtful due to various uncertain circumstances. Contrary to the economic uncertainty of developing Bolivian lithium, political reasons for 'state-led industrialization' are very clear because resource nationalism and state-centered economic strategy have been the regime's main economic policy trend. Therefore, the Morales regime could lose its political support if it overturns its economic policy trend for industrializing its lithium resource. In particular, the regime cannot risk to changing its economic policy trend in the face of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in 2014. In essence, the study argues that the combination of 'economic uncertainty' and 'political certainty' led Morales regime to choose 'state-led industrialization' for developing its lithium resource.

---

\* 이 논문은 2012년도 전북대학교 신임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Sang-Hyun Yi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Spanish and Latin American Studies a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Email: shyi@jbnu.ac.kr).

**Key Words:** lithium, Bolivia, Evo Morales, industrialization policy, rational choice / 리튬,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산업화 정책, 합리적 선택

## 서론

전자 제품 및 전기 자동차 기술 발전에 따른 리튬에 대한 수요의 확대는 볼리비아 리튬 자원의 개발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볼리비아는 우유니 염호를 중심으로 900만 톤(USGS 2011) 이상으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의 리튬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sup>1</sup> 그러나 볼리비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리튬 자원을 산업화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볼리비아 국민들은 가까운 장래에 볼리비아가 리튬 산업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튬 자원의 가치 상승과 이에 따른 국민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2006년-현재) 정권은 2010년 10월 볼리비아 리튬 자원의 산업화를 국가 주도하에 3단계에 걸쳐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탄산리튬은 국영회사인 국영광업공사(Corporación Minera de Bolivia, 이하 COMIBOL)를 통하여 생산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볼리비아 리튬의 산업화는 초기 사업 단계부터 국가의 절대적 통제 하에 실시되었다.

이러한 볼리비아의 국가 주도적 리튬자원 산업화 정책은 개발도상국의 자원 산업화 과정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볼리비아와 같이 기술과 자본이 제한적인 개발도상국은 자원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 민간분야 특히 해외 기술과 자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예컨대, 볼리비아의 대표적인 자원 산업인 주석과 천연가스 산업의 경우 초기 산업화는 민간 자본에 의해 주도되었다. 특히 기술과 자본이 절대적 역할을 차지하는 에너지 산업인 천연가스 자원 산업화의 경우 해외 직접 투자자의 기술과 자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볼리비아 역사에서 국유화와 같이 자원 산업 부문에 대한 국가개입은 산업이 성숙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경제적 이익의 실현이 분명해졌을 때 일어났다. 또한 일부 정치적으로 보이는 국가 개입의 경우에도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1 COMIBOL은 탐사를 통해서 우유니 염호의 리튬 매장량이 1800만 톤 이상에 이른다고 주장한다(*El Diario*, 2010.01.28).

형태로 일어났다. 이는 모랄레스 정권이 2006년 5월 실시한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국가 개입 확대 정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볼리비아는 제한된 기술과 자본에도 불구하고 리튬 자원을 산업화하며 초기 단계부터 국가 주도하의 산업화를 선택했을까? 본 연구는 ‘모랄레스 정권은 왜 국가 주도의 리튬 자원 산업화 전략을 선택했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실시할 것이다. 이론적 검토는 자원 산업 정책과 정책 선택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후, 본 연구가 주장하는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리튬 자원 산업과 산업화 과정을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장에서는 세계 리튬 자원 산업의 현황과 볼리비아 리튬 자원의 현황과 분포 그리고 모랄레스 정권의 리튬 자원 산업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모랄레스 정권이 실시하고 있는 리튬 자원의 산업화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모랄레스 정권이 국가 주도 산업화 정책을 선택한 이유를 도출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결론을 내리겠다.

## 이론적 검토: 자원산업 정책과 선택의 정치경제

### 기존 이론 검토

자원산업에 대한 국가주도 산업화 정책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연구하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산출한 연구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우선 ‘특정 산업 또는 기업의 소유형태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자원산업에 대한 국가 주도 산업화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정 산업 또는 기업의 소유형태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를 산출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실시된 민영화 정책과 200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실시된 국유화 정책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특정 산업 또는 기업의 소유형태와 관련된 연구’를 산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중심으로 모랄레스 정권의 리튬

자원 산업의 국가 주도 산업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학과 경영학을 중심으로 하는 미시 경제적 효율성 이론 그룹<sup>2</sup>은 일반적으로 국가 개입의 비효율성에 주목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정치화 될 수밖에 없는 국가 주도의 산업화는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이 효율적인 민간 중심의 산업화에 비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볼리비아의 국가 주도 산업화는 정책적 실수이거나 비이성적인 정치적 산물로 규정된다(Rosa and Pérard 2010, 112). 하지만 이 이론에 속하는 기존 연구들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국가 주도의 자원 산업화를 탐색하는 본 연구의 질문에 적절한 답을 주지 못한다. 즉 어떤 정책적 선택이 효율적이며, 따라서 어떠한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가를 다루는 이 그룹의 기존 연구들은 ‘왜 이러한 선택을 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본 연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본질적으로 주지 못한다.

기존 연구 중 정치적 결정 이론 그룹은 정치적 변수가 특정 산업의 소유 형태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Boycho, Shleifer, and Vishny 1996; Boix 1997; Biais and Perotti 2002; Biglaiser 2003; Opper 2004). 이 그룹은 강력한 의사 결정 능력을 가진 정치 집단의 현실적인 정치적 힘과 이념적 성향에 주목한다. 특히 집권당의 정치적 능력과 이념적 성향에 주목하는 이 그룹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능력이 크고 좌파에 가까울수록 국가가 주도하는 자원 산업화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볼리비아 모랄레스 정권의 경우 정치적으로 좌파에 가까우며 강력한 정치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리튬 자원 산업을 국가 주도로 산업화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제한적이지만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적 결정이론 또한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해당 산업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없다. 즉 이 이론에 따르면 볼리비아는 모랄레스 정권 하에서 무차별적인 국가 개입 정책을 추진한다고 상정한다. 따라서 이념과 능력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이 이론은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정책을 미시 경제적 효율성 이론에서처럼 무차별적인 정치적 산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결정 이론은 실제 정책 결정과 집행의 사례에서 미흡한 설명력을 지닌다. 가까운 예로서는 2006년 볼리비아

2 ‘특정 산업 또는 기업의 소유형태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미시 경제적 효율성 이론 그룹, 정치적 결정 이론 그룹, 그리고 거시 경제적 필요성 이론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분류는 Jean-Jacques Rosa와 Eduardo Pérard(2010)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한편 이 분류에 따른 기존 연구 검토는 볼리비아 천연가스 산업 국유화를 분석한 Yi(2010)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모랄레스 정권의 천연 가스 산업 국유화 정책 사례를 들 수 있다. 2006년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산업에서 실시된 국가 통제 강화는 모랄레스 정권의 레토릭과는 달리 다국적 투자자들과의 사업재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모랄레스 정권의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 정책은 국가가 소유와 운영을 통제하는 전면적인 국유화가 아닌 볼리비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던 해외 투자자 대부분이 재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지속하는 형태로 귀결되었다. 한편 이러한 유연한 형태의 국가 개입 강화를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모랄레스 정권이 천연가스 산업이 볼리비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즉 Yi(2010a)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2006년 볼리비아 천연가스 산업에서의 국가 통제 강화정책은 정치적 상황은 물론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었다.

거시 경제적 필요성 이론(Yarrow 1999)의 경우, 정부의 재정적 필요성이 특정 산업의 소유 형태 또는 산업화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적으로 결핍된 상태에서는 민간 주도의 소유와 산업화가 일어나고 반대로 정부 재정이 풍족한 상태에서는 국가 주도의 소유와 산업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몇 가지 한계로 인하여 제한적인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 우선 정부는 세금의 징수나 채권의 발행과도 같은 재정 확충의 방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유화와 민영화의 포함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가 많다(Rosa and Pérard 2010, 113-114). 또한 아직 산업화가 진행되지도 않았으며 전망이 불확실한 신규 자원 산업의 경우 정부의 현재 재정 상태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

한편 기존의 세 이론 그룹은 공통적으로 자원 산업 정책의 결정과 같은 복잡한 정치경제적 현상을 제한된 숫자의 독립변수에 의존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Yi(2010a)의 연구 「볼리비아 천연가스산업과 국유화의 결정요인」은 국유화 결정요인의 도출을 통한 이론화를 위하여 정치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의 통합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단일 변수에 의존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Yi는 이 연구에서 국유화를 찬성하는 정치세력의 힘과 천연가스 산업이 볼리비아에서 지니는 경제적 이익의 상호작용이 국유화 정책의 입안, 결정 그리고 집행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한다. Yi의 연구는 특정 시기 특정 산업에서 발생하는 정치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Yi의 연구는 특정 산업 분야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경제적 이익이 불분명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볼리비아 리튬 자원 산업화 정책과 선택의 이론화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존 연구 그룹들은 단일 변수에 의존함으로써 설명력의 한계를 지닌다는 단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점의 극복을 시도한 Yi(2010a)의 연구 또한 다른 사례로의 적용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볼리비아 리튬 자원 산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이 불분명한 신규 산업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볼리비아의 리튬 자원 산업화 정책과 관련하여 모랄레스는 다음의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였다. 첫 번째 가능한 선택은 ‘국가 주도의 독자 산업화’이고, 또 다른 선택은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화’이다.<sup>3</sup> 모랄레스가 직면했던 ‘국가 주도의 독자 산업화’와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화’는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국가 주도의 독자 산업화’의 경우 모랄레스 정권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민족주의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지지 기반의 확대와 강화를 지속할 수 있는 선택이다. 또한 국가 주도의 독자 산업화는 성공할 경우 볼리비아 국가가 리튬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국가 주도의 독자 산업화’ 정책은 선택에 따른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선택의 단점은 주로 볼리비아의 낮은 기술력과 자본으로 인한 것이다. 즉 모랄레스 정권이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실시할 경우 자본과 기술의 부족에 따른 시행착오와 비용의 확대로 인해 산업화 자체가 지체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산업화의 지체는 리튬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실현을 지연시켜 모랄레스 정권에 대한

3 볼리비아의 리튬 산업화 정책과 관련하여 모랄레스가 직면한 선택을 넓게 확장하면 본 연구에서 상정한 ‘국가 주도의 독자 산업화’와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한 산업화’ 이외에도 ‘산업화와 관련하여 아무런 정책도 취하지 않기’ 또는 ‘국내 민간 자본을 통한 산업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랄레스 정권의 선택의 범위를 ‘국가 주도의 독자 산업화’와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한 산업화’로 제한하여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 모랄레스가 직면한 선택의 범위를 이 두 가지로 제한한 이유는 볼리비아의 정치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다른 선택들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즉 ‘리튬 자원의 산업화와 관련하여 아무런 정책도 취하지 않는 것’은 리튬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이에 따른 볼리비아 국민들의 기대감 상승이라는 현실 속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택이다. 또한 ‘국내 민간 자본을 통한 산업화’의 경우에도 볼리비아 국내 민간 자본의 낮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감안할 때 실현성이 극히 낮은 선택이다.

정치적 반대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해외직접 투자 유치 산업화’ 정책 또한 장점과 단점을 각각 가지고 있다. 우선 장점을 살펴보면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산업화의 경우 볼리비아 정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비용으로 해외 투자자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하여 조속한 산업화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조속한 산업화는 볼리비아 정부로 하여금 리튬 산업으로부터 빠르게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하지만 ‘해외직접투자 유치 산업화’ 정책은 ‘국가 주도 독자 산업화’ 정책과 달리 모랄레스 정권의 자원민족주의 정책기조와는 상반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모랄레스 정권이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통하여 리튬 자원 산업화를 추진할 경우 정책 기존의 전환에 따른 지지기반의 상실이라는 정치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화’의 경우 산업화에 성공한다고 할지라고 산업화에 따른 이익을 해외직접투자자와 분배해야함으로 볼리비아 정부가 획득할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표 1. 볼리비아 리튬 자원 산업화 정책과 모랄레스의 선택

	Option 1. 국가 주도 독자 산업화	Option 2. 해외직접투자 유치 산업화
장점 (Benef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민족주의 정책의 일관성과 정치적 지지 확대</li> <li>- 독자 산업화에 성공할 경우 독자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적으로 적은 정부의 투자비용</li> <li>- 기술적 시행착오의 가능성이 낮음</li> <li>- 조속한 산업화의 가능성이 높음</li> <li>- 조속한 경제적 이익의 실현 가능성이 높음</li> </ul>
단점 (Detri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조속한 산업화의 가능성이 낮음</li> <li>-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비용 필요</li> <li>- 독자 개발의 필요에 따른 기술적 시행착오의 가능성이 높음</li> <li>-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의 실현이 지연되어 정치적 비판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li> <li>- 개발 후 독자 시장 개척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전환에 따른 정치적 명분의 획득 필요</li> <li>- 단기적인 지지기반의 저항 가능성</li> <li>- 해외자본과 경제적 이익을 배분해야함으로 경제적 이익이 제한적임</li> </ul>

현재 모랄레스 정권은 이러한 정책들 중에서 국가주도의 독자 산업화 정책을 선택하여 추진 중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모랄레스 정권이 왜 이런 선택을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가 모랄레스의

선택에 주목한다. 즉 본 연구는 선거에서의 승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치가 모랄레스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볼리비아의 리튬 자원의 산업화 정책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가설로 “모랄레스는 정치적 확실성과 경제적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국가 주도의 리튬 산업 자원화 정책을 선택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모랄레스의 선택은 불확실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확실한 정치적 이익에 집중하여 국가 주도의 독자적인 리튬 자원 산업화 정책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볼리비아 리튬 자원 산업화 정책과 이를 둘러싼 조건들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하고자 한다.

## 볼리비아 리튬 자원 산업 정책과 자원민족주의

### 배경: 리튬과 리튬 자원 산업

2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료로 활용되는 리튬은 무게, 체적 당 출력 밀도, 그리고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지닌 소재로 배터리의 원료로 쓰인다. 또한 리튬은 메모리 효과가 없고 니켈카드뮴 배터리와 비교하여 한 달에 약 5% 정도로 자가방전율도 낮다. 한편 금속 리튬 자체는 화학적 활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안정적인 탄산리튬( $\text{LiCO}_3$ ) 상태로 제조되어 보관 및 수송이 이루어지며 이 탄산리튬에서 이차 전지의 리튬화합물이 생산된다(KISTI Mirian, *Global Trend Briefing*, 2011.01.10).

리튬원료의 생산은 소금 호수 시스템 자원이 주로 활용된다. 특히 칠레, 아르헨티나, 그리고 볼리비아 등의 고농도 소금호수(농도 0.04-0.16%)에 존재한다. 이러한 리튬의 제조 방법들로는 증발농축정제법, 채굴선광산화법 그리고 해수를 이용한 방법 및 재활용을 들 수 있다. 현재 상대적으로 저렴한 증발농축정제법이 리튬을 제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sup>4</sup> 한편 한국의 한국지질자

4 “증발농축정제법은 소금물(continentals brines)로부터 리튬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광석계 자원을 이용하는 채굴선광정련탄산화보다 비용이 30-50% 낮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소금물을 증발 농축하고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염화물( $\text{NaCl}$ ,  $\text{KCl}$ ,  $\text{MgCl}_2$ ) 등을 제거하여 농축 염화리튬( $\text{LiCl}$ )을 얻는다. 이후 정제 공정에서 염화리튬에 탄산칼슘 등을 첨가하여 불순물인 마그네슘 수산화물을 제거하여 정제하고 탄산소다를 이용하여 탄산리튬을 얻는다. 약 1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조 공정 기간의 단축이 관건이 되는 방법이다”(KISTI Mirian, *Global Trend Briefing*, 2011.01.10).

원연구원 및 포스코 기술진이 소금물 증발 없이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다.<sup>5</sup>

리튬은 소위 리튬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볼리비아,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세계매장량의 75% 이상이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현재 리튬 생산은 칠레가 세계 1위의 생산국이며 중국과 아르헨티나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볼리비아의 경우 아직 리튬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표 2. 세계 리튬 매장량 및 생산량

국가	매장량(2010년)*	생산량(2008년)**
볼리비아	900만 톤	
칠레	750만 톤	10,600톤
중국	335만 톤	3,290톤
아르헨티나	250만 톤	3,170톤
미국	19만 톤	-
브라질	58만 톤	160톤
오스트레일리아		6,280톤

출처: \*USGS 2011, \*\*USGS 2009

### 볼리비아 리튬 자원 산업과 자원민족주의

최소한 900만 톤(USGS 2011) 이상으로 추산되는 볼리비아의 리튬 매장량은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한다. 볼리비아의 이러한 막대한 리튬 매장량은 볼리비아로 하여금 리튬 시장에서 시장지배자의 지위를 꿈꾸게 하고 있다. 특히 볼리비아의 이러한 막대한 리튬 매장량은 또 다른 에너지

5 “한국의 ‘탄산리튬 제조기술개발 사업단(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포스코 산하 연구기관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으로 구성)이 소금물 증발 없는 리튬 추출에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리튬의 생산기간을 현재 1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즉 세계 최초로 염수에 화학반응을 일으켜 리튬을 직접 추출하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하루 1000 리터의 염수에서 리튬 5 킬로그램을 뽑아내는데 성공했다. 종전의 자연증발방식은 리튬 추출 공정기간이 12개월이나 걸리는데 비해 이 신기술은 1개월 이내 최소 8시간이면 추출이 가능하고, 리튬 회수율도 종전 최대 50%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자연증발과정에서는 염수에 함유되어 있는 마그네슘과 칼륨 등이 불순물의 형태로 남아 리튬 추출에 걸림돌이 됐으나 이번 신기술은 리튬을 추출하면서 염수에 같이 함유된 마그네슘과 칼슘, 칼륨, 붕소 등을 동시에 분리 추출할 수 있어 여러 고부가가치 원소들을 동시에 자원화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에너지경제〉, 2012.02.27).

산업의 가능성을 지닌 리튬 자원의 가치 상승이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와 맞물리며 볼리비아가 리튬 자원의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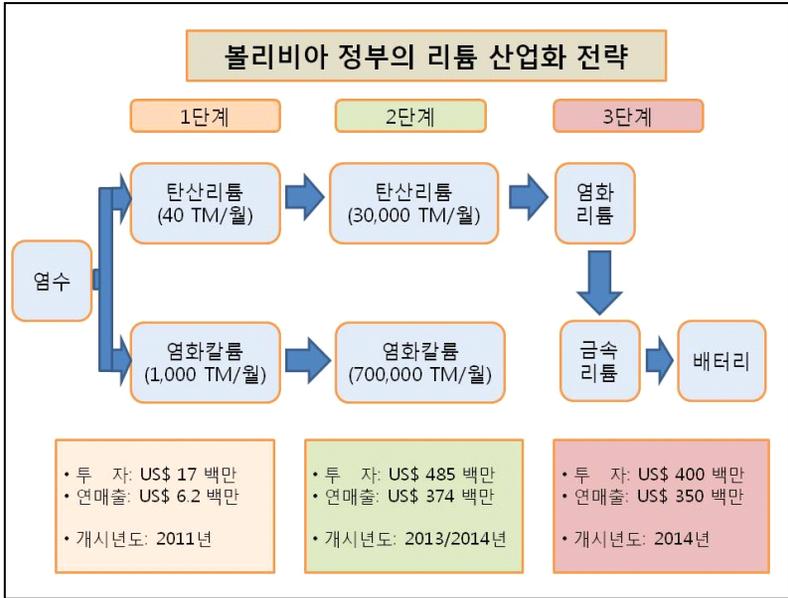
볼리비아의 본격적인 리튬 자원 산업화는 모랄레스 정권 하에서 실시되었다. 2006년 집권한 모랄레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자원민주주의적 성향을 분명히 하였다. 모랄레스 집권의 배경에는 소위 ‘물 전쟁’과 ‘가스전쟁’ 등을 통해 표출된 민간 자본 특히 다국적 기업 중심의 자원 산업 통제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결정적 작용을 하였다. 결국 수자원과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 정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지지를 받은 모랄레스는 집권 첫 해의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권 강화를 필두로 통신과 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국유화 등의 강력한 국가 개입 강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볼리비아의 리튬 자원 산업화는 볼리비아가 보유한 제한된 자본과 기술로 인하여 해외 자본과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리튬 자원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세계 각국은 볼리비아 리튬 자원 산업화의 투자자 또는 사업자가 되기를 원하였다. 한국을 포함하여 프랑스, 일본, 중국, 이란, 브라질,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이 볼리비아 리튬 자원 산업화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실제로 모랄레스 정권은 세계 각국의 주체들과 여러 형태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각 국이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여러 형태의 산업화 전략이 논의되었다.

표 3. 볼리비아 리튬 자원 산업화 (2010년 10월)

단 계	기 간	내 용
1단계	2011년부터	탄산 리튬 파일럿 공장 건설 및 시험 생산
2단계	2013-2014년	탄산리튬 및 염화칼륨 상업 생산
3단계	2014년부터	양극재 생산 및 리튬 배터리 제조

그러나 무성한 논의 끝에 모랄레스 정권은 2010년 10월 볼리비아 리튬자원의 산업화를 국가 주도하에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배터리 생산을 최종 목표로 하는 볼리비아의 리튬 자원 산업화 정책에서 볼리비아는 국영기업인 COMIBOL 중심의 산업화를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sup>6</sup>



출처: [http://www.hidrocarburosbolivia.com/images/stories/2010/20101022\\_4450%20.jpg](http://www.hidrocarburosbolivia.com/images/stories/2010/20101022_4450%20.jpg)  
 를 기반으로 필자가 번역 및 재구성.

그림 1. 볼리비아 정부의 리튬 산업화 전략

2013년 1월 2일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 포토시 리피 지역에서 탄산 리튬 추출 파일럿 공장의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이 공장은 1,900만 불에 달하는 볼리비아 정부의 자본 투자와 순수 볼리비아 기술진에 의한 태양열 증발 방식으로 건설되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우리는 자원 주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산업화하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연합 뉴스>, 2013.01.06)라고 연설하며 국가 주도의 리튬 자원 산업화를 강조하였다.

## 볼리비아 리튬 자원 산업과 선택의 정치경제

2013년 탄산 리튬 파일럿 공장 기공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 리튬 자원의 산업화는 이미 여러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형태의 시행착오

6 모랄레스 정권의 리튬 자원 산업화의 성격은 “100% Estatal” 즉 “100% 국가에 의해”라는 구호로 집약된다.

는 사업 진행을 더디게 하고 있다. 2013년 기공식을 실시한 탄산 리튬 파일럿 공장도 예정에 비해 2년 이상 늦어진 결과이다. 사업 진행의 부진은 이미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David Mares나 Juan Carlos Zuleta 같은 전문가들은 리튬자원에 대한 국가통제력 강화와 높은 이익을 추구하는 볼리비아의 정책은 결국 볼리비아가 리튬 시장에서 주요 행위자가 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란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볼리비아가 리튬 자원 산업화에서 겪고 있는 시행착오와 이에 따른 산업화의 지연은 기술과 자본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리튬 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권 강화를 추구하는 산업화 전략에서 비롯된다고 평가한다(Mares 2010; Juan Carlos Zuleta와의 인터뷰 2013.01.16; *El Diario* 2013.07.30).

그러면 모랄레스 정권은 왜 국가 주도의 리튬 자원 산업화 정책을 선택했는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모랄레스 정권과 볼리비아 리튬 자원 산업을 둘러싼 환경들을 경제적 불확실성과 정치적 확실성이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경제적 불확실성

볼리비아가 리튬 시장에서 석유 시장의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같은 시장지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세계 리튬 수요가 빠르고 충분하게 증가해야 한다. 둘째, 볼리비아의 리튬이 대규모로 필요해야 한다. 셋째, 현재의 리튬 공급 방법, 즉 현재의 리튬 제조기술이 지속되어야 한다.

우선 향후 세계 리튬에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단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즉 2008년 세계 리튬 생산능력은 100,000만 톤이었으나 생산능력의 약 75%만이 생산되었다. 한편 2020년에는 이러한 공급 확대의 추세 속에서 약 400,000톤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해 생산되는 신차의 35%가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자동차라고 추산했을 때 약 150,000톤의 리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Dundee Capital Markets 2009, 3). 한편 Gruber & Median(2010)의 예상에 따르면 세계 리튬 매장량은 3,800만 톤에 이르며 2100년까지 최대 수요는 2,400만 톤으로 충분한 공급이 예상된다.

리튬의 수요와 공급과 관련해서 추가로 짚어 볼 것이 있다. 우선 리튬 수요의 증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기자동차 Chevy

Volt의 배터리가 현재 400 파운드인데 이중에서 리튬은 약 4 파운드이다 (Sherman 2010). 이렇게 볼 때,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리튬의 수요는 볼리비아를 제외한 현재의 세계 매장량으로도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배터리 기술의 발전에 따른 수요의 감소도 가능할 수가 있고, 나아가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리튬이온이 아닌 대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리튬에 대한 수요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한편 리튬 공급의 확대 가능성은 리튬 산업에 대한 향후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한다. 아프가니스탄과 멕시코 등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리튬 매장지의 발견이라던가, 추출 기술의 발전 그리고 리튬 자원의 재생 가능성의 확대는 획기적인 리튬 공급의 증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Mares 2010, 14).<sup>7</sup>

결론적으로 향후 리튬의 수요는 증가가 예상되나 급격한 수요의 증가는 불확실하며, 공급의 확대 또한 충분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리튬 가격의 급격한 상승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근거할 때 볼리비아 리튬에 대한 세계 시장의 수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볼리비아가 리튬 시장의 지배자로서 극대화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한편 볼리비아 리튬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은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선 볼리비아 리튬 자원의 대부분이 매장되어 있는 우유니 염호의 리튬 농도는 칠레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불순물인 마그네슘은 상대적으로 높다.<sup>8</sup> 또한 우유니 지역에서 발생하는 계절적 홍수는 증발과정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어 시간과 비용을 증대시킨다. 덧붙여 해발 4000 미터의 고지인 우유니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항만의 부재 및 도로, 철도, 가스, 전기, 상수도 등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나는 열악한 기반 시설 그리고 수자원 부족과 같은 환경 문제는 볼리비아 리튬 자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이다. 결국 이는 다시 볼리비아 리튬 산업의 경제적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조건들을 살펴볼 때, 향후 볼리비아가 세계 리튬 시장에서 시장 지배자가 되어 리튬 자원에서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7 리튬 재생을 통해 리튬 수요는 2030년이 고점이고 2040년 이후에는 재생 리튬이 새로운 리튬 생산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Mares 2010, 14).

8 각 염호의 리튬 농도는 다음과 같다. 볼리비아의 Salar de Uyuni 21.5:1, 칠레의 Salar de Atacama 6.6:1, 아르헨티나의 Salar del Hombre Muerto 1.1:1.

## 정치적 확실성

앞서 살펴본 볼리비아 리튬 자원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에 비해 모랄레스 정권이 국가 주도의 리튬 자원 산업화를 선택하는데 근거가 된 정치적 변수는 상대적으로 확실성이 크다. 이러한 정치적 확실성의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모랄레스 정권이 리튬 자원을 산업화 하는데 있어서 비록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형태적 측면에서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것은 정치적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 즉 모랄레스 정권의 사회주의적 성향과 지지기반의 이념적 성향을 비추어 볼 때 국가 주도의 리튬 자원 산업화는 정치적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선택이다. 모랄레스 대통령이 속한 집권 사회주의운동당(MAS, Movimiento al Socialismo)은 좌파 성향의 정당으로 볼리비아의 원주민 운동, 코카 재배 농민 운동, 도시 빈민 운동, 노동자 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탄생한 정당이다(Yi 2010b).

표 4. 사회주의운동당(MAS)의 주요 지지세력

엘알토 (El Alto) 주민	수도 라파스의 주변도시로 약 9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엘알토의 주민은 대부분이 아이마라 원주민 출신이다. 주요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엘알토 지역은 사회주의 운동당의 핵심 지지지역이다.
노동자	볼리비아 전국노동조합(COB, Central Obrera Boliviana)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저항세력이다. 특히 광업부문 노동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광업 노동자는 COMIBOL의 노조인 FSTMB (Federación Sindical de Trabajadores Mineros de Bolivia) 소속의 노동자와 국영광업공사의 구조조정으로 탄생한 광산 협동조합(La Federación Nacional de Cooperativas Mineras de Bolivia) 소속의 노동자로 구분된다. 에너지를 포함한 광업부문의 전면적 국유화를 주장한다.
코카 재배 농민	차파레(Chapare) 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카재배 농민들로 코카박멸 정책에 반대한다. 에보 모랄레스가 지도자이다.
원주민 운동	다양한 원주민 운동 그룹을 지칭한다. 그 중 하나인 농민노조(CSUTCB) 지도자 출신의 좌파 원주민 정당 파차쿠티원주민운동(Movimiento Indígena Pachakuti)의 지도자 펠리페 키스페(Felipe Quispe)는 독립적인 '아이마라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

출처: Yi(2010a), p. 517에서 재구성.

사회주의운동당을 중심으로 한 모랄레스의 집권은 1980년대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볼리비아의 정치 및 사회 운동의 결과물이다. 특히 1985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한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에 대한 반대는 사회주의운동당의 정치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었다. 즉 COMIBOL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운동, 코카박멸운동에 반대하는 코카재배 농민 운동, 2000년 코차밤바 상수도 민영화 반대 투쟁, 2003년 천연가스 산업 국유화 운동 등은 모랄레스 정권 탄생의 원동력이다(Yi 2010a, 516). 모랄레스 정권의 이러한 태생적 특징은 집권 후 자원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 통제 강화 정책을 실시하는 정치적 지지의 근간이 되었다. 이러한 자원민족주의 정책 기조는 집권 첫 해에 실시한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정책을 포함하여 전화회사, 전기매급회사, 발전소, 송전회사, 공항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의 국유화 정책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러한 국유화 정책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리튬 자원의 산업화 정책을 국가 주도가 아닌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민간 주도로 진행하는 것은 기존 정책 기조로부터의 급진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지기반의 거센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덧붙여 기존의 정책기조에서 리튬 자원 산업화를 예외로 할 수 있는 분명한 논리도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는 모랄레스가 분명한 정치적 결과가 예상되는 국가주도의 산업화 정책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결론

본 연구는 볼리비아 모랄레스 정권이 실시하고 있는 국가 주도의 리튬 자원 산업화 정책의 이유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가는 선택을 한다. 정치가의 가장 큰 목표는 선거에서 승리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모랄레스 정권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정치적 확실성에 근거하여 국가 주도의 리튬 자원 산업화 정책을 선택하였다. 우선 볼리비아 리튬 산업은 중장기적으로는 물론 단기적으로 산업화를 통하여 볼리비아 국민이 기대하는 것처럼 획기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 즉 향후 급격한 수요의 증가가 불확실하며 다른 고가의 자원처럼 공급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불투명하다. 또한 대체자원 및 신기술의

개발 가능성은 리튬 수요에 대한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막대한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볼리비아의 리튬이 대규모로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볼리비아 염호의 낮은 리튬 농도, 높은 불순물 농도, 열악한 인프라, 적합하지 않은 기후 등은 볼리비아 리튬 산업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다. 반면 모랄레스 정권이 기존의 자원민족주의와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정책을 포기했을 때 부담해야 할 정치적 부담은 매우 크다. 지지층이 이반할 위험이 클 뿐더러 새로운 지지층이 생길 가능성은 적다. 더욱이 2014년 12월로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모랄레스에게 선거 전에 상황이 변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국가 주도의 독자 산업화’를 택하던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화’를 택하던 리튬 자원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수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과 기술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리튬 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국가주도적 방법을 선택한 것은 정치가 모랄레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Abell, Lauren and Paul Oppenheimer(2008), “World Lithium Resource Impact on Electric Vehcles,” *Plug in America*, <http://action.pluginamerica.org/o/2711/images/World-Lithium-Resource-Impact-on-Electric-Vehicles-v1.pdf>
- Aguilar-Fernandez, Rodrigo(2009), *Estimating the Opportunity Cost of Lithium Extraction in the Salar de Uyuni, Bolivia*, Master Project, Duke University.
- Biais, Bruno and Enrico Perotti(2002), “Machiavellian Privat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2, No. 1, pp. 240-258.
- Biglaiser, Glen(2003), “The Determinants of Privatization in Latin America,”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56, No. 1, pp. 77-89.
- Boix, Carles(1997), “Privatizing the Public Business Sector in the Eighties: Economic Performance, Partisan Responses and Divided Government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7, No. 4, pp. 473-496.
- Boycho, Maxim,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1996), “A Theory of Privatization,” *The Economic Journal*, Vol. 106, No. 435, pp. 309-319.
- Dundee Capital Markets(2009), *Lithium - Hype or Substance? A Look at Lithium Demand and Supply*, Investment Report, October 2009.
- Gruber, Paul and Pablo Medina(2010), *Global Lithium Availability: A Constraint for Electric Vehicles?*, Master Thesis, University of Michigan.
- Guriev, Sergei, Anton Kolotilin and Konstantin Sonin(2009), “Determinants of Nationalization in the Oil Sector: A Theory and Evidence from Panel Data,”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2011), Working Paper version, Advance Access published online on June 23, 2009.
- Hogenboom, Barbara and Alex E. Fernández Jilberto(2009), “The Political Economy of Latin America’s Extractive Industries: The State and Shifting Political Regime,” Paper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2009 Congress of the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11-14 June, Rio de Janeiro.
- Hollender, Rebecca and Jim Shultz(2010), *Bolivia and its Lithium: Can the “Gold of the 21st Century” Help Lift a Nation out of Poverty?*, The Democracy Center.
- Huber, Evelyn and Michelle Dion(2002), “Revolution or Contribution? Rational Choice Approaches in the Study of Latin American Politics,”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 44, No. 3, pp. 1-28.
- Kohl, Benjamin and Linda Farthing(2012), “Material Constraints to Popular Imaginaries: The Extractive Economy and Resource Nationalism in Bolivia,” *Political Geography*, Vol. 31, pp. 225-235.
- Kohl, Benjamin and Rosalind Bresnahan(2010), “Introduction Bolivia Under Morales: National Agenda, Regional Challenges, and the Struggle for Hegemony,” *Latin American Perspectives*, Issues 173, Vol. 37, No. 4, July, pp. 5-20.

- Mares, David R.(2010), "Lithium in Bolivia: Can Resource Nationalism Deliver for Bolivians and the World?," Prepared by the Energy Forum of the James A. Baker III Institute for Public Policy as Part of the Study "Energy Market Consequences of an Emerging U.S. Carbon Management Policy," September.
- Opper, Sonja(2004), "The Political Economy of Privatization: Empirical Evidence from Transition Economies," *Kyklos*, Vol. 57, No. 4, pp. 559-586.
- Radhuber, Isabella(2012), "El litio en Bolivia: Reflexiones preliminares acerca de las disputas en curso," Paper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Seminar "Transformación socio-ecológica y política energética en América Latina y Europa," La Fundación Rosa Luxemburgo, la Universidad de Viena y el Instituto Renner, 11-14 July.
- Rosa, Jean-Jacques and Eduardo Pérard(2010), "When to Privatize? When to Nationalize? A Competition for Ownership Approach," *Kyklos*, Vol. 63, No. 1, pp. 110-132.
- Sherman, Don(2010), "When Electric-Car Batteries Die, Where Will They End Up?," *New York Times*, June 10.
- Ströbele-Gregor, Juliana(2012), "Litio en Bolivia. El plan gubernamental de producción e industrialización del litio, escenarios de conflictos sociales y ecológicos, y dimensiones de desigualdad social," *desigualdades.net*, Working Paper Series, No. 14, Berlin: *desigualdades.net* Research Network.
- USGS(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2009), "Lithium," Mineral Commodity Survey, January, <http://minerals.usgs.gov/minerals/pubs/commodity/lithium/mcs-2009-lithi.pdf>
- Weil, Marcel, Sasaki Ziemann, and Liselotte Schebek(2009), "How to Assess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for New Technologies? Case Study: Lithium a Strategic Metal for Emerging Technologies," *Revue de Métallurgie*, Vol. 106, No. 12, December, pp. 554-558.
- Weyland, Kurt(2002), "Limitations of Rational-Choice Institutionalism for the Study of Latin American Politics," *Studies in Comparative Institutional Development*, Vol. 37, No. 1, pp. 57-85.
- Yarrow, George(1999), "A Theory of Privatization, or Why Bureaucrats are still in Business?," *World Development*, Vol. 27, No. 1, pp. 157-168.
- Yi, Sang-Hyun(2007a), "The Determinants of the Restructuring of COMIBOL, 1985-2001,"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20, No. 3, pp. 85-119.
- \_\_\_\_\_(2007b), "Resource Nationalism and the Restructuring of the Natural Gas Industry of Bolivia," *KIEP Series for Korea's Mid- to Long-Term Economic Strategy 07-10-04*,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_\_\_\_\_(2010a), "The Bolivian Natural Gas Industry and the Determinants of Nationalization," *Estudios Hispánicos*, Vol. 56, pp. 503-524.

———(2010b), “Social Movements and Political Party: The Case of MAS (Movimiento al Socialismo) of Bolivia,”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23, No. 4, pp. 147-168.

Article Received: 2013. 10. 13

Accepted: 2013. 10. 31